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0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3일
발 의 자 :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장 선정을 앞두고, 개·폐회식장을 평창으로 선정하기를 촉구 건의하는 평창군의회 입장을 의회 의결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장인 올림픽스타디움은 IOC와의 약속에 따라 폐회 후 철거되었고 이후 유산사업을 개최할 때마다, 개·폐회식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아니라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 나. 또한, 평창군의회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번의 성명서를 통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를 한 적이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 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림픽대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며 ‘올림픽 유산사업’의 계승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으로 개·폐회식장 선정을 해줄 것을 건의함.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우리 평창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요람(搖籃)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열광 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스타디움’을 정부가 IOC와 약속한 대로 환경과 사후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회 직후 철거함으로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유산사업은 개·폐회식장 철거와 동시에 동력을 잃었고,

각종 올림픽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개최장소 문제로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과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다시 개·폐회식 장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여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의 평창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군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계승을 위해 『‘99동계아시안게임』과 『2013동계스페셜 올림픽』 개최식 장소인 ‘평창 돔’ 경기장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식을 진행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과 99년 이후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 개최역사의 정당성 계승을 위해 개·폐회식 장소로 평창이 선정되었다는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소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해지기를 확신하며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조직위원회에 정중히 건의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평창군의회